

#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2020년 동남권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과 동일한 -15.9%의 급락세를 보였다. 조선, 자동차, 석유정제,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주력 수출업종이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데 기인한다. 같은기간 전국(-5.4%) 대비 수출 감소폭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동남권은 기저효과, 글로벌 경기개선, 수요산업 회복 등으로 전년대비 12.3% 상승한 1,16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팬데믹 관련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석유정제가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글로벌 소비 회복 등으로 두 자리 수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19.6%, 석유정제는 16.1%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도 대외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8.3~9.9% 수준의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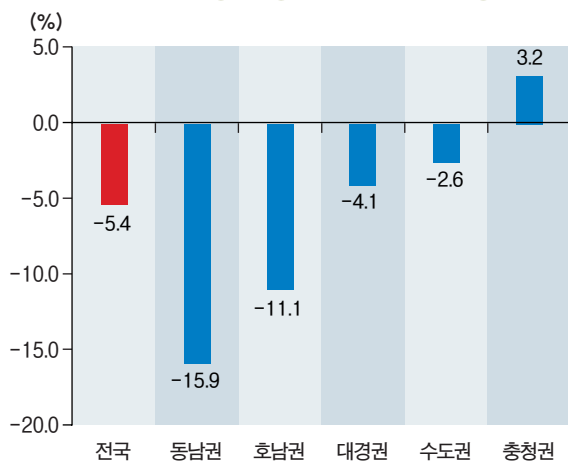
## 지난해 동남권 수출,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 감소

2020년 동남권 수출<sup>1)</sup>은 전년대비 -15.9% 감소한 1,033억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세계 수입수요 급감이 부진의 요인으로 지목된다<sup>2)</sup>. 같은기간 전국 수출은 -5.4% 줄어든 5,128억달러로 조사되었다.

경제권역별 실적 하락폭은 동남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호남권(-11.1%), 대경권(-4.1%), 수도권(-2.6%)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다만 충청권(3.2%)의 경우 충북과 대전이 각각 12.8%, 24.0% 증가한 데 힘입어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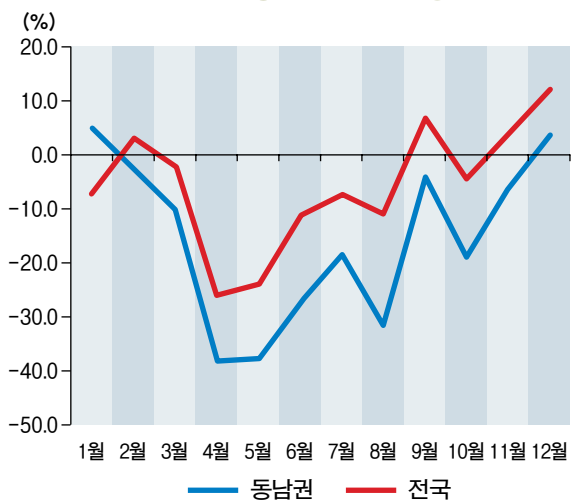
월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동남권은 전국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지난해 4월 저점(-38.1%)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폭을 축소해 나가며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12월중에는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광역경제권별 수출 증가율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0년 동남권 수출 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본 연구의 수출실적은 수출금액 기준

2) 2020년 1~9월중 전세계 및 5대 수입수요국 수입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IMF 기준  
· 세계(-10.1), 중국(-2.6), 미국(-10.0), 독일(-9.2), 네덜란드(-9.2), 일본(-13.8)

3) 충북은 컴퓨터(152.2%)와 농약및의약품(813.0%), 대전은 반도체(174.0%) 수출 호조로 증가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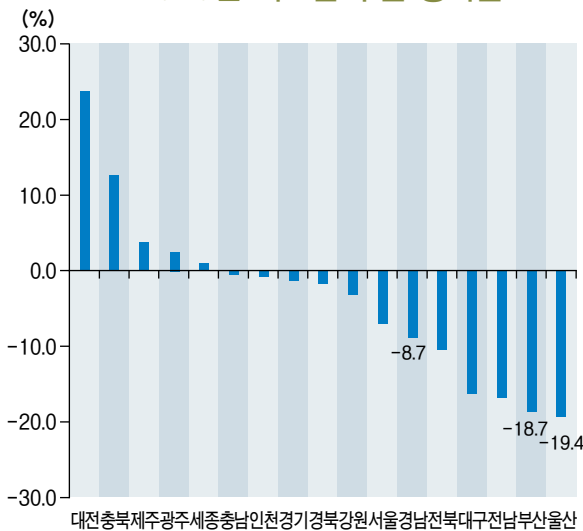
동남권 지역별로는 울산(-19.4%), 부산(-18.7%), 경남(-8.7%)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특히 울산은 17개 특별·광역시도중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부산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품목별로는 울산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가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10.3% 감소했다. 2위 석유제품도 수출단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4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위 품목인 선박(-6.0%), 합성수지(-9.3%), 자동차부품(-27.0%)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남은 1위 품목인 선박이 선주측 인수 연기 등으로 -4.5% 감소하고 2위 자동차 부품(-15.4%)도 두 자리 수 감소세를 보였다. 3위 섬유및화학기계<sup>4)</sup>는 2016년 이후의 증가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19.2% 줄었으며 5위 건설광산기계(-8.8%)도 감소했다. 반면 4위 원동기및펌프(2.8%)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소폭 증가했다.

부산의 경우 중국 등 주요국 철강수요가 감소하면서 1~2위 품목인 철강관(-3.6%), 철강관및철강선(-16.0%) 수출이 부진했다. 이와함께 3~5위 품목인 원동기및펌프(-12.8%), 주단조품(-6.9%), 기계요소(-8.7%)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시도별 수출 증가율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0년 주력품목별 수출 증가율

구분	부산	울산	경남
1위	철강관 (-3.6)	자동차 (-10.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5)
2위	철강관및철강선 (-16.0)	석유제품 (-43.6)	자동차부품 (-15.4)
3위	원동기및펌프 (-12.8)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0)	섬유및화학기계 (-19.2)
4위	주단조품 (-6.9)	합성수지 (-9.3)	원동기및펌프 (2.8)
5위	기계요소 (-8.7)	자동차부품 (-27.0)	건설광산기계 (-8.8)

주 : MTI 3단위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최근 5년중(2016~2020년)중 경남지역 섬유및화학기계 수출 증가율(%)  
 · 42.2(2016년) → 1.7(2017년) → 12.7(2018년) → 178.8(2019년) → -19.2(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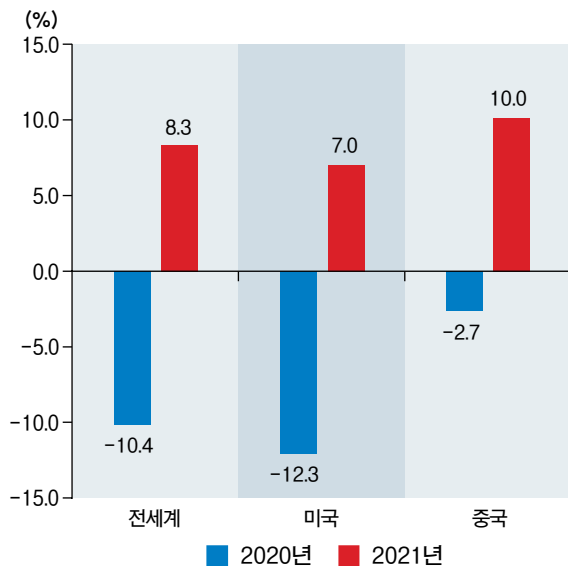
## 2021년 동남권 수출 여건은 개선될 전망

올해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남권 수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MF는 2021년 세계경제가 지난해 기록했던 마이너스 성장(-4.4%)의 충격에서 벗어나 5.2%의 증가율을 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지난해 두 자리 수 이상 급감(-10.4%)했던 전세계 교역량 신장률은 금년 중 8.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권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G2의 교역량 확대는 지역 수출 개선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2020년 -12.3%에서 2021년 7.0%, 중국은 같은기간 -2.7%에서 10.0%로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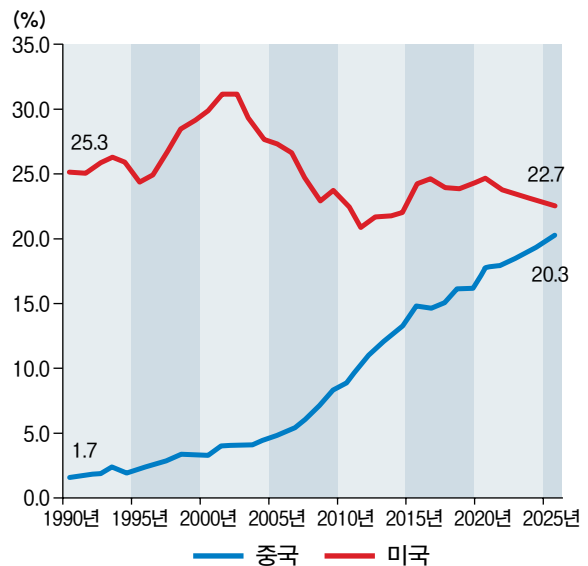
다만 팬데믹 관련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등은 세계경제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국가의 백신 접종 시작에도 불구하고 변이 확산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간 경제규모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세계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분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 교역량 신장률



주 : 2020년 10월 발표 기준  
자료 : IMF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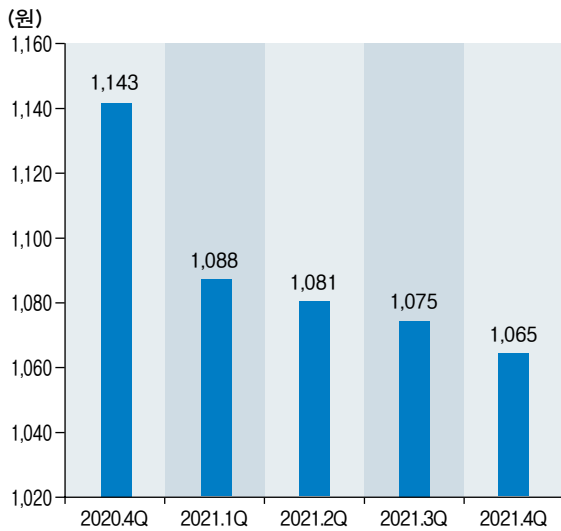
주 : 1)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명목 GDP 기준  
자료 : IMF

한편 미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경우 하락세가 예상되면서 동남권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2020년 연평균 1,180원을 기록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난해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1,125원, 산업연구원은 1,110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위안화 강세 등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경우 전망치를 국내 주요기관들보다 낮은 1,077원(12개사 평균)으로 제시했다.

국제유가의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사우디아라비아 감산<sup>5)</sup> 등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 영향은 업종별로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수출단가 상승이 기대되고 기계 및 철강의 경우 중동지역 투자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조선 및 자동차는 비용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친환경 선박 및 자동차 수출에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 전망



주 : 2021년 1월 발표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국제유가 전망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WTI	57.0	36.9	41.8	47.2
Brent	64.5	42.2	44.3	49.2

5) 금년초 개최된 OPEC+ 화상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2~3월중 하루에 100만 배럴씩 추가 감산할 것이라고 발표

## 지역 주력산업, 모두 수출 증가세로 전환 예상

### 조선

지난해 동남권 선박 수출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159억달러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박인도 연기 등으로 201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금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생산 및 인도절차 정상화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2018~19년중 국내 총수주량(2,321만CGT)중 약 40%(918만 CGT)를 차지했던 LNG선 인도가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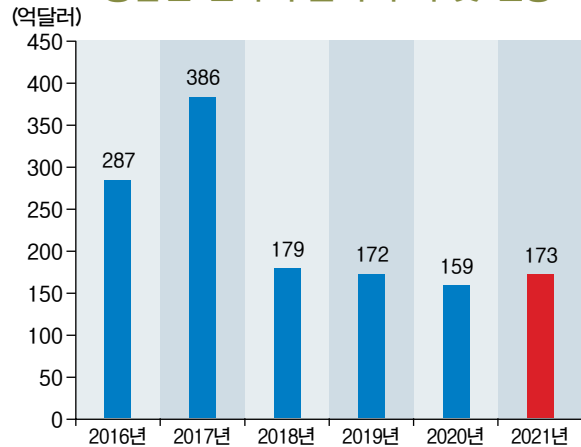
산업연구원, 수출입은행, 현대경제연구원<sup>6)</sup> 등 주요 전망기관에서는 2021년 국내 선박 수출이 203~205억달러에 달하면서 2019년 수준(202억달러)을 상회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sup>7)</sup>. 국내 선박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도 전국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올해 전년대비 8.3% 상승한 173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기관별 국내 선박 수출액 전망  
(억달러)

전망기관	2020년	2021년
산업연구원	198	203
수출입은행		205
현대경제연구원		198~205
산업은행		238

주 : MTI 746(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각 기관

동남권 선박 수출액 추이 및 전망



주 : MTI 746(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소

6)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시나리오와 경기 개선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망치 도출  
7) 산업은행의 경우 LNG선 인도를 중심으로 2021년중 선박 수출액이 238억달러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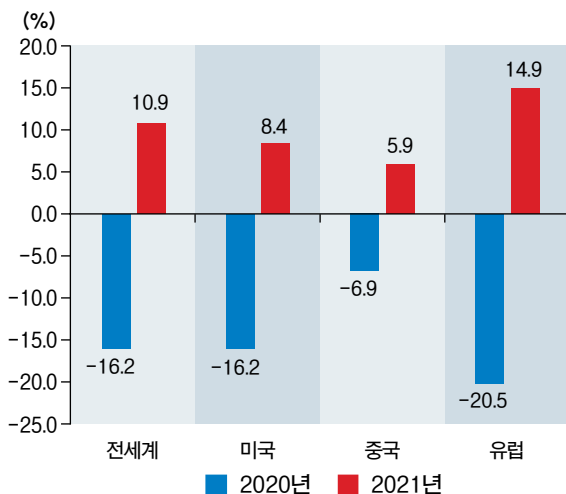
자동차

2020년 동남권 자동차 수출 실적은 친환경차, SUV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단가 상승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수요 급감으로 전년대비 -16.3% 감소한 171억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승용차중 친환경차 수출 비중(대수 기준)은 2019년 10.8%에서 2020년 14.7%로 상승했으며 같은기간 SUV는 63.9%에서 71.8%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동남권 수출은 기저효과, 글로벌 소비심리 회복, 전기차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의 반등이 기대된다. 2021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중국(5.9%), 미국(8.4%), 유럽(14.9%)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은 EU, 미국 등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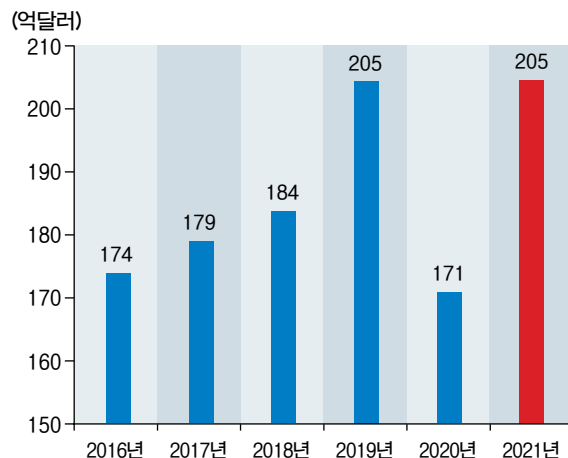
이와함께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sup>8)</sup> 기반 신차 출시, 르노삼성차의 XM3의 유럽 수출 개시 등도 동남권 자동차 수출 증가 속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은 대외수요 회복, 지역 자동차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로 올해 동남권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19.6% 상승한 205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sup>9)</sup>.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



주 : 2020.3분기 발표 기준  
자료 : LMC Automotive

동남권 자동차 수출 추이 및 전망



주 : MTI 741(자동차)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소

8)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는 2020년 12월 현대차가 공개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 설계로 안정성, 공간 활용성 및 라인업 확대 효율성을 높여 전기차 시장내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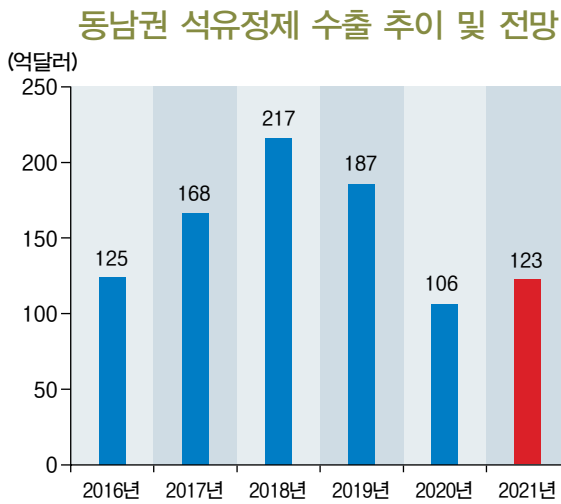
9) 자동차산업협회, 산업연구원, 수출입은행 등 주요 전망기관은 2021년 국내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을 15~25% 수준으로 예상

석유정제 · 석유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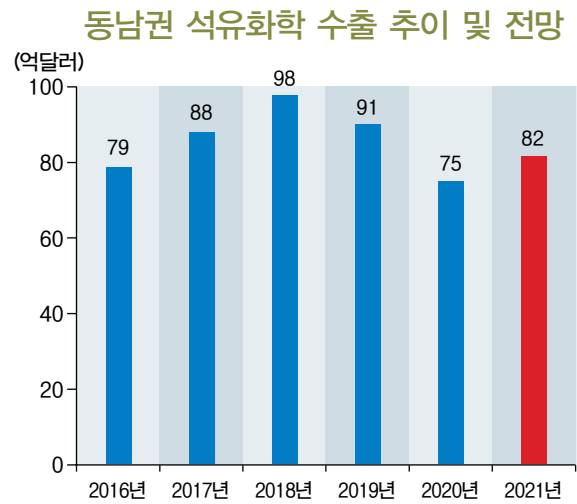
지난해 동남권 석유정제 수출은 전년대비 -43.4% 급락하고 석유화학도 -17.2% 줄어들었다. 석유정제 부진은 운송용 제품 수요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며 석유화학은 소비둔화, 제조업 침체에 따른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석유정제 수출은 기저효과, 글로벌 수요 반등,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 회복 등으로 급락세에서 벗어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은 금년에는 석유 수요(9,909만b/d)가 공급(9,883만b/d)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의 정제능력 상승 등이 일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동남권 석유정제 수출은 전년대비 16.1% 상승한 12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도 수출 개선이 기대된다. 공급과잉 지속 우려<sup>10)</sup>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회복, 수출단가 상승, NCC 업체의 경쟁력 개선 효과<sup>11)</sup>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동남권 석유화학 수출 실적은 9.4% 상승한 82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 : MTI 133(석유제품)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소



주 : MTI 21(석유화학제품)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소

10) 업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 계획이 지속 추진되면서 202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화학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11) 2020년중 원유가격(WTI 기준)은 전년대비 -31.1% 감소하며 천연가스(-16.0%)보다 큰 폭으로 하락. 이로인해 NCC 기반의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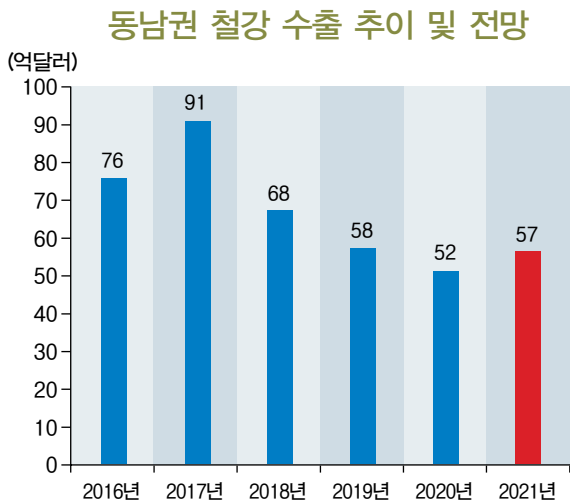


**철강 ·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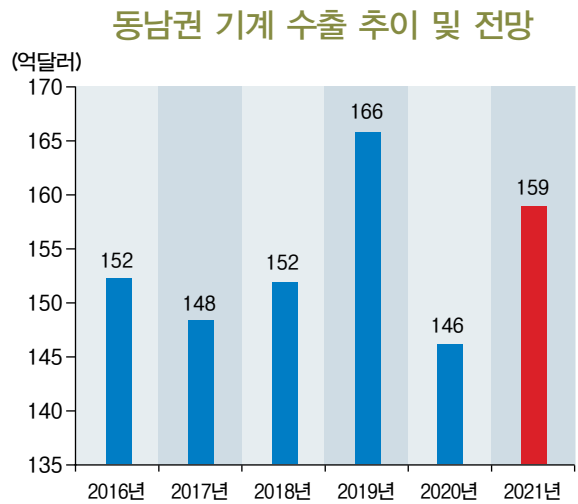
2020년 동남권 철강수출 실적은 -10.2% 감소한 52억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철강제품 수요 감소로 3년 연속 두 자리 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동남권 기계 수출은 같은기간 -11.9% 감소하며 146억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동남권 철강 수출은 건설, 자동차 등 전세계 주요 전방산업 개선, 중국의 탄소 저감 정책에 따른 조강생산 축소 등에 힘입어 반등할 전망이다. 세계철강협회는 올해 전세계 철강수요가 4.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같은 글로벌 수요 확대 등의 효과로 동남권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9.9% 늘어난 5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의 경우 기저효과, 제조업 업황 개선, 주요국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 중동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 건설기계 및 공작기계의 수출 호조세가 기대되고 있어 2021년 동남권 기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8.8% 상승한 159억달러로 높아질 전망이다.



주 : MTI 61(철강제품)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소



주 : MTI 71, 72, 75, 79 합계(일반기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소

##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년대비 12.3% 상승한 1,160억달러 전망

지난해 동남권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과 동일한 -15.9%의 급락세를 보였다<sup>12)</sup>. 조선, 자동차 등 주력업종 수출이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데 기인한다. 같은기간 전국은 -5.4% 감소하는데 그치며 동남권 대비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sup>13)</sup>.

올해는 기저효과, 글로벌 경기개선, 수요산업 회복 등으로 전년대비 12.3% 상승한 1,16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팬데믹 관련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19년 수준(1,228억달러)까지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업종별<sup>14)</sup>로는 자동차와 석유정제가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글로벌 소비 회복 등으로 두 자리 수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19.6%, 석유정제는 16.1%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도 대외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8.3~9.9% 수준의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억달러, %)

구분	금액		증가율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조선	159	173	-7.4	8.3
자동차	171	205	-16.3	19.6
석유정제	106	123	-43.4	16.1
석유화학	75	82	-17.2	9.4
철강	52	57	-10.2	9.9
기계	146	159	-11.9	8.8
기타	323	362	-7.6	11.9
합계	1,033	1,160	-15.9	12.3

주 : 조선은 MTI 746, 자동차는 MTI 741, 석유정제는 MTI 133, 석유화학은 MTI 21, 철강은 MTI 61, 기계는 MTI 71, 72, 75, 79 합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소

12) 2010년 동남권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13.8% 반등

13) 전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가 5.6%의 수출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하락폭이 축소

14) 동남권 주력산업별 지역내 수출비중(%), 2016~20년 평균 기준)

조선	자동차	석유정제	기계	석유화학	철강
19.2	14.8	13.0	12.4	7.0	5.6

[ 참고문헌 ]

산업연구원, “2021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2021.12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수출입 동향,” 2020.1.1  
 한국금융연구원, “2021년 경제전망,” 2020.12  
 한국무역협회, “미중 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 2020.10  
 한국산업은행, “2021년 산업 전망,” 2020.12  
 한국수출입은행, “2021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망,” 2020.12  
 한국은행, “2021년 세계경제 방향을 좌우할 7대 이슈,” 2020.12.31  
 현대경제연구원, “2021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2020.11  
 LMC Automotive, “COVID-19 Automotive Sector Impact Report?,” 2020.11  
 국제금융센터, www.kcif.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자동차산업협회, www.kama.or.kr  
 IMF, www.imf.org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2019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	-----------------

**BNK** 금융그룹  
Busan N Kyungnam

언제나, 어디서나  
“I'm banking!”

BNK는 새로운 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BANK**를 바꾸다  
**BNK**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케이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BNK벤처투자 BNK생명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1-0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1년 1월 28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